

미-이란 종전 MOU 타결과 기술주 중심 증시 강세, 금리·환율은 FOMC 여파 소화



미국시황/ESG 김윤정 _yunjeong.kim@ls-sec.co.kr
RA 성현영 _hyseong@ls-sec.co.kr

종전 MOU 에 반등, 기술주 중심의 증시 상승

- 미 증시는 DOW +0.14%, S&P500 +1.08%, NASDAQ +1.91% 상승. 기술주, 임의소비재 강세, 에너지, 금융, 헬스케어 약세
- 이란과 종전 MOU 발효로 투자심리 전반 개선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반도체 칩 설계 및 생산을 강조하며 애플과 인텔의 협력을 언급하면서 반도체·기술주 강세 지수상승 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6.4%

미-이란 종전 MOU 원격 전자서명으로 최종 타결

- 전일 장마감후 미-이란 양국 정상은 종전 MOU에 전자서명을 완료했다고 발표. 19일로 예정되었던 대면조인식을 생략하고 MOU 절차가 최종 완료된 것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전면 해제 및 미 군부 주도 해협내 기뢰 제거 작업이 선포 즉시 개시되며 국제 유가 약세, 미 야간선물 상승
- 60 일간 휴전 유예기간 연장 및 종전 논의 절차 착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범위, 미 금융제재 해제, 핵문제 등 조율 예정
- 밴스 부통령은 MOU 서명은 환영하나 이란이 약속을 어길시 백악관의 즉각적인 군사 보복이 뒤따를 것이라고 언급

매파적 FOMC 영향 소화중인 금리 및 환율

- 국채금리 혼조 10Y 4.443%(-2.0bp), 2Y 4.179%(+1.6bp).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인플레이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포워드가이던스 축소하며 정책 결정의 데이터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단기물 금리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 설명
- 달러인덱스 100.62 상방압력 지속, 13 개월래 최고치. 금(-2.7%)·은(-5.5%)에도 영향. 원달러환율 야간거래 1,540 원 터치
- 경제지표도 대체로 달러 강세 지지. 6 월 필라델피아연은 제조업지수 10.3 전월·컨센 상회. 5 월 경기선행지수 MoM +0.1%.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6 만건 전주 대비 감소, 컨센은 소폭 상회

티커	종목명	수익률 (1D,%)	내용
INTC	인텔	+10.6%	트럼프 대통령의 애플(+0.7%)과 미국 내 칩 생산 추진 발언에 주가 강세. 애플의 잠재적 파운드리 수주 확보로 TSMC (+7.0%) 대비 열위였던 파운드리 사업부의 모멘텀 회복 기대감 유입. 한편 반도체 섹터 전반 기대감에 TSMC도 상승. 애플은 팀쿡 CEO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아이폰 가격 인상 가능성을 제시. 메모리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에 메모리주 강세
SPCX	스페이스X	-3.6%	최소 \$20B 이상 회사채 발행 논의 소식 보도. 조달 자금은 '27년 만기 도래하는 \$20B 규모의 브릿지론 차환에 사용될 예정. Moody's와 Fitch는 스페이스X의 채권 등급을 투기등급보다 3단계(notch) 높은 Baa1과 BBB+로 각각 평가. S&P 글로벌은 BBB 등급 부여
ACN	액센츄어	-18.0%	실적발표. 회계연도 3분기 매출 컨센서스 하회, 신규 수주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하며 수요 모멘텀 둔화 시사. 연간 매출 가이던스 하향 및 보수적인 4분기 전망 제시에 실망 매물 출회되며 폭락
PFE	화이자	-2.7%	데이브 덴튼 CFO의 8월 사임 발표 주가 약세. 세실 게간 수석 부사장이 8월 16일부로 임시 CFO직을 수행할 예정이며, 현재 정식 후임자 물색 중. 코로나19 관련 제품군의 수요 감소 이후 실적 회복을 모색하는 가운데, 시장은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 진출 및 광범위한 경영진 재편이 차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지 주목
ENPH	인피이즈 에너지	+9.4%	유럽 주요 시장에 주거용 태양광 신제품 'IQ9N 마이크로인버터' 출시 발표. 바클레이즈는 데이터 센터 전력 스택 내 고체 변압기(SST)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투자의견을 'Underweight'→'Equalweight'으로, 목표주가를 \$30→\$51로 상향 조정